2020-07-28

석촌호수(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는 송파구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이다.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와 서호로 나뉘는데,
동호는 조깅코스, 서호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와 서울놀이마당 등이 있어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석촌호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정취를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석촌호수 카페거리는 어느 계절이든 상관없이 호수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형 카페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등이 있어 연인과 달콤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136(서호), 잠실로 180(동호)

지하철

[지하철2호선] 잠실역 2, 3번 출구

버스

[간선] 301, 302, 303, 320, 341, 360
[지선] 2412, 3217, 3413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할까?

롯데백화점 잠실점 주차장 / 롯데월드몰 지하주차장 / 잠실역 환승 공영주차장 / 방이동 공영주차장
올림픽공원 주차장 /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주)케이앤제이서울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도 역사해설가

석촌호수는 '잠실 쪽 한강에 토사가 쌓여 형성된 섬'을 육지화는 공사(하천 등 수면을 매립하여 육지화하는 사업)에서 생겨난 호수이다. 그때 매립공사로 생겨난 땅이 현재의 잠실동과 신천동이다.

석촌호수는 그 자리가 본래 송파나루터(서울과 남한산성 및 광나루에서 각각 20리씩 떨어져 있던 교통의 중심지로 병자호란(1636) 직후부터 서울과 광주를 잇는 가장 큰 나루)가 있었던 한강의 본류였다. 그래서 석촌호수를 송파나루공원으로도 부른다. 현재 석촌호수 동호에는 송파나루터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석촌호수 서호 근처에는 삼전나루터 표석이 있다. 세종 때 생긴 삼전나루는 한강나루, 노들나루와 함께 3대 나루 중 하나였다. 삼전나루는 '삼밭나루, 삼밭게'라고 했는데 밭이 셋 있다는 뜻이다. 서해 바닷물이 미치지 않는 땅을 갈아 삼(대마)을 심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세밭나루, 뽕밭나루, 삼전나루를 거쳐 삼전도로 굳었다. 삼전도는 섬(島)이 아니라 나루(渡)다.

겸재 정선이 1741년에 그린 진경산수화 '송파진'

검단산의 능선 위에 지렁이(?) 처럼 있는 것은 남한산성 성채이다. 가운데 관아의 왼쪽 마을은 송파, 오른쪽 비각 아랫마을은 삼전이다. 오른쪽 초가집 위로 보이는 단칸 기와 건물이 삼전도 비각으로 추정된다. 현재 삼전도비는 석촌호수(서호) 근처에 있다.

삼전도는 치욕과 수난의 땅이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강화도로 피신을 하지 못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몽진했다. 항전 40여 일간의 대치 끝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지금의 송파)에 있는 청 태종에게 갔다. 수항단(항복 의식이 열린 제단)이 차려진 삼전나루에서 청군에 항복하는 의식(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찧는다)을 했고 청나라의 요구로 청 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비가 세워졌다. 정식 이름은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이지만 1963년 문화재 지정 당시 지명을 따서 '삼전도비'라고 지었다. 삼전도비에는 조선이 청에 대해 항복하게 된 경위와 청 태종의 침략을 '공덕'이라고 예찬한 굴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주)케이앤제이서울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